

SK, BP와 광양발전사업 공동 추진

SK전력, K-Power로 사명 변경 ... 에너지 개발 · 운용경험 시너지 기대

SK전력이 K-Power(케이파워)로 사명을 변경하고, 전력 사업 추진을 위한 BP와의 합작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.

SK전력(대표 박영덕)은 1월15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K-Power Co. Ltd(케이파워주식회사)로 사명 변경을 결의했다.

이와 함께 K-Power는 국내 최대 에너지·화학기업인 SK(대표 황두열)와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BP가 합작해 광양LNG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.

K-Power 박영덕 대표이사는 “한국 에너지 사업에서 확인된 SK의 리더쉽과 BP가 보유한 풍부한 발전소 개발 및 운용경험이 결합한다면 전력 사업에 있어서 최상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

행사에는 K-Power 이사진 및 SK CFO 유정준 전무, E&M(Energy & Marketing) 부문장 김명곤 전무 등 SK 관계자와 함께 BP Gas Power & Renewables의 Anne Quinn 부회장 등 BP의 고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합작법인의 출범을 축하했다.

K-Power는 2003년 12월22일 광양LNG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위한 합작 파트너로 세계적인 에너지기업 BP를 선택하고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

BP는 12월24일 유상증자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K-Power의 지분 35%를 소유한 합작 파트너로서 국내 전력 사업에 공식 참여하게 됐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4/01/20>